KIA 마운드 확 달라졌다…불펜 도약에 선발도 뒷받침

KIA 타이거즈 결산 〈1〉투수

팀 평균자책점 4.66→4.27…리그 7위서 3위 도약
불펜 평균자책점 9위→3위…실점 40점 감소
전상현·조상우·성영탁 등 기존 투수들 활약
올러·네일 원투펀치 선발진 지탱…양현종 12승
새 마무리 확보·외국인 재계약 등 내년 과제


네일


올러


양현종


전상현

〈KIA 타이거즈 제공〉

2026시즌 KIA 타이거즈의 반등에는 마운드의 힘이 컸다. 지난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투수진이 올해는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선발진보다 불펜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KIA의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은 4.27이다. 지난해 4.66보다 0.39 낮은 수치다. 리그 순위도 7위에서 3위로 뛰었다.

총 실점은 734점에서 664점으로 70점 줄었다. 투수진의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WAR)는 13.16에서 22.65로 상승했다. 마운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KIA 구원진의 평균자책점은 5.22였다. 10개 구단 중 9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4.41로 낮아지며 3위에 올랐다. 개선 폭은 0.81이다.

실점은 337점에서 297점으로 40점 감소했다. 투구 이닝은 538이닝에서 547이닝으로 늘었다. 더 많은 이닝을 맡으면서도 실점을 줄인 셈이다.

전상현의 활약이 돋보였다. 올해 46⅓이닝에서 평균자책점 2.33을 기록했다. 지난해 70이닝, 3.34와 비교하면 크게 좋아진 성적이다. 부상으로 등판 기회는 줄었지만 투구 내용은 한층 나아졌다.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수)도 1.20에서 0.80으로 낮췄다.

조상우도 제 몫을 했다. 지난해 60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90을 남겼다. 올해는 63이닝을 던지며 3.29까지 끌어내렸다.

성영탁은 올 시즌 60경기에서 3승 3패 7홀드 13세이브를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3.47이다. 전반기에는 마무리로 활약했다. 시즌 세이브를 모두 이 기간에 수확했다.

곽도규는 32이닝 동안 2승 11홀드, 평균자책점 2.81의 성적을 냈다. 이적생 김범수와 이태양도 각각 13홀드와 6홀드로 힘을 보탰다.

KIA는 지난겨울 불펜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구원진 전체 성적은 크게 좋아졌지만 외부 영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규시즌 3위 도약에는 기존 투수들의 기여가 컸다.

불펜의 성적 향상에도 마무리 체제는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

시즌 초반 정해영이 부진으로 마무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성영탁도 전반기 말미에 흔들렸다. 후반기 들어 이의리가 뒷문을 맡았지만 제구 불안에 시달렸다. 시즌 막판에는 전상현을 중심으로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가동했다.

블론세이브는 지난해 21회에서 올해 22회로 늘었다. 정해영은 올해 평균자책점 6.12에 머물렀다. 다음 달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의리의 활용 방안도 고민거리다. 전반기 선발로 나선 그는 평균자책점이 9.42에 달했다. 후반기에는 불펜으로 이동해 성적을 끌어올렸다. 구원 등판 28이닝에서 평균자책점 3.21로 선전했다.

이후 마무리까지 맡으며 팀 승리를 지켜냈다. 하지만 제구 불안으로 다시 중간계투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에는 선발 복귀 가능성도 있다. KIA로서는 이의리의 적합한 보직을 찾는 일이 중요해졌다.

선발진은 불펜에 비해 성적 향상 폭이 작았다.

평균자책점은 지난해 4.28에서 올해 4.18로 소폭 낮아졌다. 리그 순위는 공동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투구 이닝은 736⅔이닝에서 732⅔이닝으로 4이닝 줄었다.

그 속에서도 외국인 원투 펀치가 중심을 잡았다.

올러는 올 시즌 178이닝, 평균자책점 3.13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9이닝 더 던졌고 평균자책점도 3.62에서 크게 낮췄다. 탈삼진도 169개에서 180개로 늘었다.

네일은 팀 내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지난해 164⅓이닝을 던졌던 그는 올해 183이닝을 소화했다. 평균자책점은 2.25에서 3.49로 높아졌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켰다.

토종 선발 가운데서는 양현종의 존재감이 눈에 띄었다. 2024년 11승 이후 2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회복했다. 올해는 12승을 거뒀다. 평균자책점도 지난해 5.06에서 4.19로 좋아졌다. 다만 투구 이닝은 153이닝에서 124⅔이닝으로 줄었다.

황동하는 선발로 77⅓이닝을 소화했다. 평균자책점은 4.42다. 아시아쿼터 선수 시라카와도 선발진에 가세했다. 79⅓이닝을 던졌고 평균자책점은 4.76이다.

선발진의 한계는 퀄리티스타트(QS)에서 드러났다. QS는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져 3자책점 이하로 막아낸 경기다.

KIA는 지난해 58차례 QS를 달성했다. 올해는 50차례에 그쳤다. 선발 실점 억제력은 향상됐지만 QS는 오히려 줄었다.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

투수진의 실점 감소에는 수비 안정도 한몫했다.

KIA는 지난해 리그 최다인 123개의 실책을 범했다. 올해는 98개로 줄었다. 수비율도 0.977에서 0.981로 높아졌다. 비자책 실점은 74점에서 57점으로 낮아졌다.

마운드의 모든 지표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팀 피홈런은 지난해 110개에서 올해 139개로 늘었다. 볼넷도 511개에서 534개로 증가했다. 장타 허용과 제구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도루 저지율도 27.0%에서 18.2%로 떨어졌다. 투수의 견제와 포수의 송구를 함께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2027시즌을 앞두고 해결할 문제도 적지 않다. 정해영의 입대로 마무리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의리의 선발 복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선발진은 더 많은 이닝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 네일과 올러의 재계약 여부가 변수다.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도 계약 협상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KIA의 내년 목표는 올해보다 높은 곳에 있다. 안정적인 선발진과 확실한 마무리 확보가 그 출발점이다.

/주홍철 기자

"겨울 프로스포츠 감동은 계속돼야 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SOOP 연고지 유치 일등공신…'배구 도시 광주' 연계육성 시스템 구축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가 오는 5일 오후 7시 SOOP 스타디움(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역사적인 홈 개막전을 연다.

이번 시즌 전남광주에 둥지를 튼 SOOP 수퍼스는 김세진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수단 개편 등 새로운 변화를 기치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 연고지 공식 확정으로 겨울스포츠의 명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월 재정난이 심각해진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연고 AI페퍼스의 운영 포기를 발표하고 매각 수순에 돌입했다. 구단은 FA 선수들을 다른 구단으로 보냈고, 팀 훈련도 중단됐으며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과 드래프트 조차 참가하지 못하며 사실상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창단 이후 4시즌 빛고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AI페퍼스의 아픔은 광주를 또다시 겨울 스포츠 불모지로 전락시키는 상처로 남을 뻔했다.

이에 광주시체육회는 배구인 출신 전갑수 회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꾸려 한국배구연맹(KOVO) 및 인수 의향 구단들과 연고지 유치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5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인수를 이끌어냈고, 6월 한국배구연맹의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전남광주 연고지 확정과 더불어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게 됐다.

전갑수 회장은 전남광주에 뿌리 내린 SOOP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염주종합체육관의 안정적인 홈경기장 운영과 시설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갑수 회장의 겨울 프로스포츠 유치에 대한 열정은 전남광주 배구 발전 육성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연계육성 기틀을 다지는 성과로 꼽힌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서구 SOOP 스타디움에서 열린 창단식 및 시즌 출범식에서 SOOP 수퍼스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회장은 지역 배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갑수 회장은 당장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소년 선수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배구클럽에서 취미로 배구를 시작한 장신 유망주의 엘리트 선수 진입과 성장을 지원했으며, 해당 선수가 소속된 문흥중 배구부는 지난 7월 전국중고배구대회 남자 15세 이하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계 육성이 자리를 잡으며 광주체고 여자배구부는 창단 이후 13년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광주여대 배구부는 창단 4년 만에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등 학교와 대학 배구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5년부터 전국외국인노동자배구대회를 지원해 온 가운데 올해는 12개국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등 600여 명이 참가해 배구를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배구는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인 만큼 유소년 발굴부터 전문체육, 생활체육, 프로스포츠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 선수들이 광주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SOOP 수퍼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배구 저변 확대를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배구의 중심도시로 도약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배구를 비롯한 동계프로스포츠 활성화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시민들의 여가문화 확산으로 이어져 320만 특별시민 모두가 수준 높은 스포츠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김효주가 지난달 22일 열린 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6 1라운드 1번홀에서 그린을 살피고 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야마시타 미유가 지난달 11일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아람코 코리아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라이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2승 김효주 vs 3승 야마시타'

내일 개막 LPGA 토토 저팬 클래식서 한·일 자존심 대결

2026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가을 '아시안 스윙'의 마지막 대회인 토토 저팬 클래식(총상금 210만 달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다.

오는 5-8일 일본 이바라키현 다이헤이요 클럽 미노리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토토 저팬 클래식에는 78명(LPGA 투어 43명·JLPGA 투어 35명)의 선수들이 컷오프 없이 우승 상금 31만5천달러(약 4억2천400만원)를 놓고 겨룬다.

토토 저팬 클래식에 나서는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7명(김효주·이미향·전인지·황유민·강민지·주수빈·고진영)과 JLPGA 투어 2명(신지애·이민영)을 합쳐 모두 9명이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가을 아시안 스윙에서 아직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뷰익 LPGA 상하이에선 최혜진이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해 인뤄닝(중국)에게 우승을 내줬고,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선 유해란과 최혜진이 1타 차로 요시다 유리(일본)에 이어 공동 2위에 올랐다.

또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선 유해란이 손가락 부상으로 기권하는 아쉬움 속에 일본의 야마시타 미유가 시즌 3승에 성공하는 등 가을 아시안 스윙 3개 대회를 치르면서 한국은 일본(2회), 중국(1회)에 밀렸다.

한국에선 세계랭킹 6위 김효주가 시즌 3승과 개인 통산 10승에 재도전한다.

김효주는 지난 3월 포티넷 파운더스컵과 포드 챔피언십에서 잇달아 우승한 뒤 6월 다우 챔피언십과 8월 FM 챔피언십에서 두 차례 준우승을 따내며 좀처럼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기만 하다.

함께 출전하는 이미향(세계랭킹 45위)은 3월 블루베이 LPGA 우승이 이번 시즌 유일한 '톱10' 달성이라 시즌 2승을 향한 의지가 뜨겁다.

여기에 세계랭킹 60위 이내 선수들만 나서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 확보가 발등의 불인 황유민(53위), 강민지(65위), 주수빈(62위), 고진영(92위)도 분발이 절실하다.

일본에선 지난해 LPGA 무대에 데뷔해 2승을 따낸 뒤 이번 시즌 3승을 추가하며 통산 5승을 쌓은 야마시타가 눈에 띈다.

직전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야마시타가 정상에 오르면 넬리 코르다(미국), 지노 티띠꾼(태국·이상 4승)과 함께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선다.

/연합뉴스